

TV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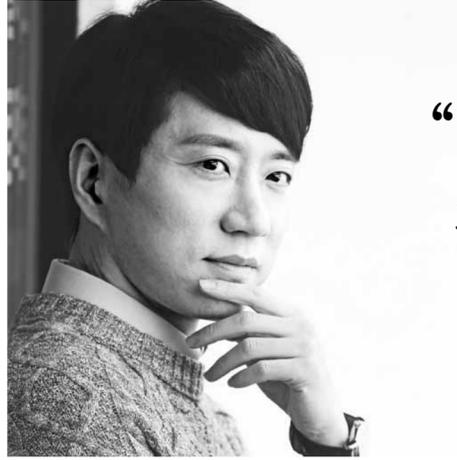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like 'KBS 뉴스광장', '2TV 아침', 'MBC 뉴스투데이', etc.

Table with 4 columns: EBS, EBS, EBS, EBS. Rows list various EBS programs like 'World News Review', '부모', '치료와 친구들', etc.

Table with 4 column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플러스3, EBS플러스4. Rows list various EBS Plus programs like '수능열기', '2016 수능개념', etc.

Table with 4 columns: 知天命이 보는, 子, 丑, 寅, 卯, 辰, 巳. Rows contain horoscope-like text for various zodiac signs and dates.



“나를 닮은 역할에 편안한 연기 했죠”

영화 ‘조선명탐정2’서 ‘김민’ 역 김명민

배우 김명민(43)은 유독 캐릭터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배우다. 김명민 이름 석자보다 그가 맡은 캐릭터가 더 강하게 인상에 남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하얀 거탑’,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그는 성웅 이순신 장군이었고, 야망이 넘치는 장준혁 과장이었고, 까칠한 ‘감마에’였다. 그만큼 감정 소모도 커 작품을 마친 뒤에는 항상 여행을 떠나 스스로를 치유하고 돌아와야 할 정도다.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를 연기한 영화 ‘내사랑 내곁에’(2009) 촬영을 마친 뒤에는 우울증과 불면증 등을 겪은 탓에 미국에서 2~3개월 머무르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2박3일 일본 여행에 그쳤다고 한다. ‘조선명탐정: 사라진 놈의 딸’을 찍고 난 뒤의 얘기다. 3일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명민은 “역할을 하고 나면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해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뒤로 미루고 내 알몸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즉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2011년 설 연휴 극장가를 사로잡은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에 이어 4년 만에 선보인 속편 ‘조선명탐정: 사라진 놈의 딸’에서 김명민은 전제와 ‘허당’을 넘니드는 명탐정 ‘김민’으로 분했다. “김민 캐릭터는 내가 그동안 맡은 역할 중에서 가장 나와 닮았다”는 김명민은 가장 닮은 부분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전부”라고 웃으며 답했다. “제 입으로 제가 허당기가 있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웃음) 정말 친한 지인은 영화를 보고 ‘(김민이) 너랑 정말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코믹 캐릭터지만 “연기에 대한 접근은 비슷하다”고 했다. “코믹 연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웃기려는 감각 관념이 있었다면 오히려 힘들었겠지. 말도 안 되는 끼를 김민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기하게 되니까 자연스런거였지. 김석윤 감독님이 판을 깔아줬고, 담수 형(오달수)이 다 받아주니까요. 정말 즐거운 촬영 현장이었어요.” 김명민은 “허당기 있는 부분에서 나와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힘의 안배가 필요했다”며 “김민은 적체적소에 정확한 감정을 안배해줘야 하기 때문에 유쾌하고 분위기 좋

은 촬영 현장 속에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했다.”고 말했다. 1편 촬영 당시 ‘아이언맨’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애니메이션 ‘달려라 하니’의 홍두개 선생을 연구했던 그는 이번에는 촬영에 들어가기 전 1편을 수차례 보며 캐릭터의 연속성을 이으려 애썼다. 김명민은 “1편은 솔직히 복잡하고 헷갈리는데 2편은 깔끔하게 잘 끝난 것 같다”면서 “똑똑 끊기는 부분 때문에 아쉬움이 컸던 1편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강화해 (2편은) 1편보다 탄탄해졌다”고 영화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명민은 ‘조선명탐정: 사라진 놈의 딸’을 원작으로 한 1편과 달리 2편은 별도 원작이 없이 자체 시나리오로 이뤄졌다. 명탐정 김민이 서필(오달수)과 함께 조선 경제를 휘젓고 불량업과 사건과 소녀의 실종 사건을 파헤치는 얘기다. 그는 “캐릭터가 극대화되고 애깃거리가 하나로 압축돼 훨씬 더 간결해지고 응축돼 깊이 들어가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말했다. 극중 김민과 서필의 호흡처럼 김명민과 오달수의 연기 궁합은 ‘사라진 놈의 딸’에서 한층 더 차지게 들어맞았다. “저희 둘의 실생활이 그랬어요. 촬영이 끝나면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죠. 제가 원래 막걸리는 안 마셨는데 담수 형 때문에 막걸리를 마시게 됐어요. 그렇다고 작품에 대한 얘기를 진지하게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대부분이었죠.” 김명민은 “담수 형은 상남자 스타일”이라며 “내가 (오달수에게) ‘시한부 마초 남성의 진한 멜로’ 얘기가 어울릴 것 같다고 했더니 본인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전날 시사회 후 열린 간담회에서 ‘설록 홈즈’와 ‘조선명탐정’을 비교하는 질문에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내기에는 우리가 더 우월하고 인간미 넘치고, 더 귀엽다”고 했던 김명민은 “조선명탐정’ 시리즈는 보호 차원에서 계속 가야 하는 영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조선명탐정’은 ‘왜 그렇지?’ ‘뭐지?’ 이렇게 따지거나 같은 율박하면 안 돼요. 그냥 각자 상상하면 되고 또 각자의 상상이 다 맞는 영화죠. (웃음) 3편까지 갖 것 같지 않아요?” /연합뉴스

EBS ‘명의’ 전남대병원 윤택림 병원장 출연

퇴행성 고관절... 내일 밤 9시50분 방영 두 번째 출연... 특허 수술법 등 소개



전남대병원 윤택림 병원장이 6일 밤 9시50분 EBS 의학다큐멘터리 ‘명의 3.0’에 출연한다. 이날 방송될 명의는 ‘골절성 퇴행성 고관절-노년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내용이다. 정형외과 교수인 윤택림 병원장의 명의 출연은 학회·의사실문 등 EBS 명의 선정 절차를 통해 결정됐으며, 지난 2013년(우리결의 명의-고관절 질환 윤택림 교수편)에 이어 두 번째이다. 지난달 5일부터 약 3주간 촬영한 이번 명의에서는 윤택림 병원장의 92세 노인에게 대한 수술 장면과 진료 모습 그리고 병원장으로서의 바쁜 일상 등이 방영될 예정이다. 윤택림 병원장은 무려 9000여회의 수술 기록과 함께 다수의 국제특허를 가지고 있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 의료계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다. 특히 윤택림 병원장이 직접 개발해 미국 특허를 받은 ‘두 부

위 최소 침습 수술법’은 근육손상이 거의 없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이 없는 의술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20cm 정도 절개해야 하는 기존의 수술법과는 달리 7cm 내외로 두 군데 절개하는 미니 절개술로 환자의 입원과 회복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독자적인 수술법이다. 이번 명의 촬영을 감독한 EBS 박준신 PD는 “이번 촬영기간 중 진료실이나 입원실 어디서든지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상하게 설명해주고, 끝으로 미소 띤 표정으로 격려해 주는 윤택림 병원장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평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송창식 한국대중음악상 공로상

김사월X김해원 ‘올해의 음반’ 등 5개부문 최다 후보



‘세시봉’을 대표하는 뮤지션인 송창식이 제12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의 공로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상식 선정위원회 사무국은 3일 중구 태평로 한국연예진흥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후 7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송창식이 공로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또 종합분야 및 장르분야의 후보도 발표했다. 김사월X김해원은 ‘올해의 음반’, ‘올해의

노래’, ‘올해의 신인’, ‘최우수 포크 음반’, ‘최우수 포크 노래’ 등 5개 부문에 이름을 올려 최다 후보가 됐다. 이 밖에도 서태지가 ‘올해의 음악인’, ‘최우수 댄스&일렉트론노래’ 등 2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음악인’은 장르분야 후보에 오른 뮤지션이 자동으로 후보가 되며 3~22일 네티즌의 투표로 3개 부문(그룹·남자·여자) 수상자가 가려진다. /연합뉴스